

第13回 韓國電子展 參觀記

金 貞 欽

理博·高麗大教授

熱氣던 會場, 비오는 日曜日이었는데도 展示場안은 밝았고 活氣에 차 있었으며 흡사 戰爭터와도 같았다. 展示會場 中央에 자리잡은 三星·金星·大韓電線 등 큰 메이커들의 展示場에 雲集한 觀覽客들, 흘러나오는 팝송, 壁 全体가 부라운관·부라운관·부라운관으로 꽉 차 있는 壁面, 數10個의 画面이 일제히 變化하는 오지경속과도 같은 世界. 第13回 韓國電子展은 요란한 광파르를 울리면서 이렇게 幕을 열었다.

技術 輸出이룩한 製品

筆者는 電子工學의 專門家도 아니요 電子製品의 購買家도 아니다. 따라서 마음 내키는대로 이 展示場 저 展示場을 기웃거리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興味가 없으면 아무리 優秀한 製品이라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 따라서 이 參觀記도 偏見에 꽉 차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이야기해 두는 것이 誤解를 덜 받을 것 같다.

實은 10月29日 開館式때도 招待를 받았지만 先約이 있어 參席을 못했고 日曜日인 오늘도 때마침 제자의 主禮를 서게 되어있어 아침부터 보았으면 했지만(招待狀이 있었으니) 뜻을 이루지 못하고, 主禮가 끝나기가 무섭게 展示會場을 向했다.

아무리 非專門家라 해도 우선 大統領賞, 國務總理賞 등 굵직 굵직한 製品만은 먼저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金星精密의 大統領賞에 빛나는 船舶用 레이더는 紙上에 船舶用레이더라 소개되어 있었기에 적어도 數m는 넘는 巨大한 레이더를 연상했는데 막상 展示場에 가보니 조그마한 模型같은 것밖에 놓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模型인

가요?」하고 無識을 들어냈더니 그게 模型이 아니고 實物이란단다. 길이가 두자도 될까말까한 막대같은 것이 초롱같은 球面體랄까 橢圓體 위에 올려놓아진, 아무리 보아도 레이더같지는 않았다. 레이더라 보기 보다는 차라리 요새 流行하는 現代作家들의 抽象的 彫刻같기도 하였다. 사실 現代 彫刻作品으로서도 賞을 탈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으니 역시 大統領賞을 받을만도 했다.

이렇게 조그마하면서도 有效距離가 66.6km나 된다니 하여튼 世上은 오래 살고 보아야 할 일이라고 切實히 느꼈다. 外國製의 4200弗線에 비해 값도 2300弗밖에 되지 않아 有望한 輸出商品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미 유럽地域에 1,500대 이상이나 注文을 받고 있단다. 아마 展示期間중에는 더 많은 注文을 받았으리라. 어찌 되었든 이런 製品이 우리 손으로 開發 되었다는 것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진다.

電子式 私設交換機의 發展

國務總理賞에 빛나는 韓國電子通信(株)의 電子式私設電話交換機도 좋았다. 20回線의 조그마한 交換機이지만 의외로 利用가치가 많은 것 같다. 가격도 저렴해서 벌써부터 日本의 도시나 臺灣의 電力公司 등이 技術을 사가겠다고 야단이란단다. 지금까지 日本에서 一方的으로 技術을 輸入했지만 이렇게 되면 日本으로 逆進出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 하나의 國務總理賞은 大德電子의 多層 回路基板인데 정직히 告白하면 이 方面의 專門知識이 全然 없는 筆者로서는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할 能力이 없었다. 그러나 이 製品의 登場으로 컴퓨터의 配線거리가 짧아져, 電子交換機 信號전송의 高速化가 이루어진다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輸入代替 效果를 가져오는 우수 製品이라 한다.

말하는 自動販賣機

굵직 굵직한 賞을 받은 製品은 이만해 둔다. 왜냐하면 이들에 對해서는 一般 新聞어나 經濟紙面에 자세히 사진까지 곁들여 紹介되어 있으니 말이다.

나의 관심사는 신기한 製品의 구경이다. 그래서 큰 賞을 대충 案内를 받아 돌아본 후 三星 電子의 말하는 自動販賣機를 구경하러 갔다. 不幸하게도 내가 갔을 때는 自動販賣機內에 內藏해 둔 商品이 다 팔려 機械가 가동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 기계에 설치된 2個의 赤外線 센서(사람이 방출하는 赤外線を 感知하고 가까이 오면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며, 또 어떤 종류의 인사와 말을 하는지를 說明듣는다.

이 自動販賣機 옆에는 音聲認識TV가 놓여 있다. 이것도 不幸하게도 動作을 볼 수 없었다. 마이크가 있었는데 누군가 觀覽者 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버린 모양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마이크로폰을 가져가본들 보통 사람에게겐 별로 소용도 없었을 터인데 말이다. 덕택에 수없이 많은 觀람객이 이 신기한 現代의「알리바바」의 實況을 보지 못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音聲認識TV의 등장으로 이제 앞으로 얼마 안있어 여러 가정에서는 가벼운 부부싸움이 展開될 可能性이 짙어졌다. 例컨데 男便이「 채널9」하면 부인이「채널7」하고 채널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男便도 지지않고「채널9」, 그러면 부인도 지지않고「채널7」하고 맞설 것이다.

옛날 손으로 일일이 채널을 돌리던 시절에는 이 時点에서 대개의 남편은 싸우다 말고 포기해 버리지만(몸을 움직여 채널 다이얼 돌리거란 귀찮은 일이므로), 音聲認識TV는 입만 움직이면 되므로「채널9」하고 男便은 계속 채널權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限없는 채널權 싸움이 계속되거나 않을까 약간 근심도 된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이점이 TV製造會社가 노

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렇게 每日 싸우다 지친 男便은 어느날 뜻하는 바 있어 또 하나의 小型TV를 사와 이 채널權 싸움을 解決하려 들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 다음은 말하는 電子렌지를. 단추를 누르면 英語로「둘째줄에 있는 단추하나를 골라서 누르세요」라던가,「時間은 2분30초입니다」라든가 등의 英語가 튀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全量 美國으로의 輸出用이란다. 하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電子렌지의 普及은 미미한 상태이므로「말하는 電子렌지」를 골라서 쓸만큼 보급은 안되어 있으니 말이다. 말하는 自動販賣機도 마찬가지로 需要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技術은 輸出에는 꼭 必要하다. 使用言語를 英語로 바꾸어 놓고 輸出商品으로 만들면 많은 外貨를 벌어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신기한 라이트펜

애들에게 人氣를 끈것에 라이트펜이 있다. 그 애들 중에는 50이 지난 筆者도 끼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실 이 기계부근은 国民學校學生들이 그 일대를 占領하고 있어 차례를 기다리다가는 한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슬쩍 앞으로 다가 案内하는 아가씨에게「이 라이트펜은 色체가 몇개 나오더라」하고 有識한체 얘기 했더니네「12가지입니다」(實은 12가지인지 10가지인지 確實히 기억이 잘나지 않지만 하여튼 12가지 전후였던 것 같다) 하면서 돌아다 본다.「됐다」 싶어 나는 国民學校學生이 갖고 있는 라이트펜을 아주 自然스럽게 물려받고 CRT(부라운관) 밑에 있는 色표시 단추에 라이트펜을 살짝 갔다댄 후 画面에 라이트펜을 갔다 댈다. 그랬더니 라이트펜이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노랑色軌蹟이 그려진다. 다음은 빨강, 그 다음은 푸른色을 그린다. 애들처럼 더 계속해서 장난을 하고 싶었지만 50지난 老人이, 그것도 巧임술을 써서 새치기를 한것에 약간의 良心도 쫓려 그 정도로 스톱을 하고 그 어린이에게 라이트펜을 돌려준다. 어린時節에 되돌아간 것 같아 재미가 있었다. 그 어린이것을 속임수로 잠깐 빌려쓴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했지만 어렸을 때 속임수로 남의 순서를 살짝 따돌렸을 때의 생각도 나고 해서 짜

릿한 快感마저 맛보았으니 노망일까?

팩시밀리의 놀라운 發展

다음은 여러 회사가 내어놓은 팩시밀리(facsimile). 비슷비슷한 製品이 신도리코, 롯데, 三星, 金星, 大韓電線 등등 여러 회사가 내 놓았으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昨年에 3 회사가 제 각기 3分機, 1分機, 40秒機를 내놓았는데 今年에는 10個회사가 팩시밀리戰線에서 角逐戰을 벌이고 있고, 그 대부분이 高速機를 내놓고 있다. 15~20秒機 전후의 것이 出品되어 저마다 自社 것이 優勢하다고, 熱을 올리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다 優秀해 보였다. 筆者가 받은 複写된 카피를 보면 20秒機인데도 아주 鮮명한 模写寫眞이 複写되어 있다. 來年부터는 체신부도 팩시밀리를 위해 電話回線을 開放할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팩시밀리가 普及되리라 예상된다. 누구나 손쉽게 팩시밀리의 플러그를 電話回線에 꽂고, 다이알을 돌려 상대방을 물러내고, 冊이나 또는 보내고자 하는 画面을 뒤집어 얹어놓고 단추만 누른다면 400km나 떨어진 釜山이나 135,000km 떨어진 뉴욕에서도 단 20秒만에 그 画面이나 冊의 페이지를 原本거의 그대로 複写할 수 있다니 귀가 막힐 지경이다. 이제 얼마 안가서 戀愛便紙를 팩시밀리로 보내는 젊은이마저 나타날 것이다. 또 서울에 있는 學生이 釜山에 家庭教師를 두고 팩시밀리로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家庭教師 禁止令 違反이 될것인지 아닌지, 새로운 法律的 解釈이 必要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 遠隔複写機, 또는 電子郵便機의 登場으로 數年内로 우리의 生活風景이나 事務室의 風景도 뒤바뀔 것이 틀림없다.

外国会社 見聞

물론 이 展示會에는 外国商事도 많이 나와 있다. 이 展示會는 博覽會는 아니고 바이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展示場의 차림새나 넓이가 바로 그 会社製品의 重要性을 代表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Intel社가 그것이다. 모르는사람이 보면 別스러운 것도 없다. 그저 무엇인가 조그마한

그리마벌레같은 것이 바로 LSI(大規模集積回路)를 케이스에 담아둔 것이었다. 별도의 다른 진열장에는 5mm×6mm, 또는 4mm×5mm 정도의 조그마한 調整색의 윤이 나는 돌조각이 진열되어 있다. 肉眼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光沢이나게 잘 갈아놓은 돌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돌조각표면에 15萬個의 電子部品이 들어있으니 놀랄 놀字이다. 어쨌든 이 회사가 世界 最初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만들어(71年12月) 世界를 깜짝 놀라게 했고, 또 79년에는 世界 최초로 64킬로 비트級의 LSI를 만든 会社이니 존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손님은 통 없다. 물론 바이어들이야 잘 알겠지만 일반 손님들이 없어 약간 쓸쓸해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코포 세라믹스」(俗稱 코세라)를 들여다 보았다. 젊은 친구가 한가히 冊을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손님이 한 사람도 없으니 말이다. 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얼떨떨한 表情을 한다. 다시 「安寧하세요」 했더니 「아노……」하고 日本말로 이야기한다. 하긴 韓國代理店도 없을터이니 日本사람이 展示場을 지킬 수 밖에 그래서 日本말로 여러 가지로 그전부터 묻고 싶은 것들을 물었더니 손님이 없어 쓸쓸했던지라 기뻐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해 준다. 이 코포세라믹이 지금 世界의 高級LSI의 케이스를 독차지하고 그 売上高는 數億\$이나 된단다. 그 일본 친구는 그 외에도 最近의 窒素系 세라믹스의 發展이며 세라믹엔진이며 등등 코세라의 研究開發品에 관해 신이 나서 있는 知識을 다 털어놓고 說明해 준다. 그래서 나도 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參觀 後記

이리하여 1時15分부터 보기 시작한 나는 문을 닫는 오후 5時의 마지막 까지 어떤 때는 뛰다 시피, 스키고 지나가면서 또 어떤 展示場은 구멍이 뚫어질세라 자세히 들여다보곤 하였다. 마지막에는 걸기가 싫을 정도로 발도 아팠지만 하얗든 많은 것을 보았다. 展示會가 있는지 이미 2週日도 지난 지금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낼려 해도 생각이 얼핏 나지를 않는다. 그러나 나의 潛在意識속에는 그 製品이나 불렛틴(bulletin) 등

이 하나하나 들어박혀 있어 언젠가 必要할 때 갑자기 내 머리속에 意識으로서 떠오르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言及한 製品 말고도 나의 머리속에는 數 많은 오디오 製品들이 떠오른다. 高忠實度의 HiFi 콤팩트가 지금도 눈에 아른거리는가하면 비디오파스카의 자랑스러운 모습들도 눈에 떠오른다. 여러 会社가 出品한 비디오 카메라. 비록 外國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高級 映像機器들이 自體開發팀에 依해 開發되었고 製作되었다는데 큰 긍지를 느낀다. 10年前만 해도 보잘 것 없던 우리의 電子技術이 이토록 놀라운 發展을 했다니 정말 경탄할 일이다.

昨年과 比較해서도 越等한 進歩가 엿보이는 電子展覽會 손재주가 좋고, 머리의 回轉이 빠르고, 意慾的인 우리 技術陣. 비록 現在로서는 美國과 日本에 크게 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中進國에 比하면 훨씬 앞서 있는 우리의 位置! 앞으로 86年이 되면 우리도 64K의 LSI를 量產化해서 堂堂히 世界 7位國을 確保할 것이 予想되는 우리의 電子技術界. 4時間가까이나 走馬燈 보듯이 훑어본 參觀記이긴 하지만 筆者의 눈에 띈 印象은 매우 強熱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來年 이맘때면 더 華麗하고 發展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非專門家의 參觀記를 끝마친다.

